Symphony No. 5 in E♭ major, Op. 82

- □□

정보

개요

곡명 : *Symphony No. 5 in E♭ major, Op. 82*
작곡가 : Jean Sibelius (1865–1957)
작곡 시기 : 1914–1915; revised 1916 and 1917–1919
기준 판본 : 1919 final version
초연 : 1915년 12월 8일 , Helsinki, Helsinki City Orchestra, Jean Sibelius 지휘 ; 최종판 초연 1919년 11월 24일 , 같은 도시 ·악단 ·지휘자
장르 : Symphony in three movements (1919 final version)

IMSLP: Symphony No. 5, Op. 82 (Sibelius, Jean)

Wikipedia: Symphony No. 5 (Sibelius)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번호가 붙은 교향곡 일곱 곡을 남겼고 , 이 작품은 그중 다섯 번째다 . 소요 시간은 약 30–35분이고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다 . 짧은 선율 조각은 되돌아올 때마다 속도와 음색이 달라지고 , 그것을 맡는 악기도 바뀐다 . 이런 변화가 쌓여 곡의 큰 흐름을 만든다 . 처음에는 호른과 목관이 드문드문 신호를 주고받는다 . 마지막에는 긴 침묵 사이로 오케스트라가 여섯 차례 타격하며 곡을 끝낸다 .

세 악장을 따라가면 전체 윤곽이 보인다 . 1악장은 느린 음악에서 시작해 스케르초 성격의 빠른 음악으로 이동하고 끝으로 갈수록 속도를 높인다 . 2악장에서는 피치카토 현악과 목관이 짧은 주제를 내놓고 , 주제가 반복될 때마다 음색과 화성이 달라진다 . 3악장인 피날레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현악 위로 넓은 호른 주제가 떠오른다 . 이 주제가 트럼펫으로 옮겨진 뒤 마지막 여섯 타격과 그 사이의 침묵이 전곡을 닫는다 .

오늘날 통상 연주되는 형태는 1919년 최종판이다 . 1915년 초연판은 네 악장이었고 , 시벨리우스는 이듬해 처음 두 악장을 연결한 뒤 1919년에 작품을 다시 압축했다 . 지금의 1악장이 느린 도입과 빠른 스케르초를 한 호흡 안에서 잇는 까닭도 이 개작 과정에 있다 .

피날레의 호른 주제는 흔히 “백조 주제 ” 또는 “백조 찬가 ”라고 불린다 . 시벨리우스는 1915년 4월 21일 열여섯 마리 백조를 본 경험과 피날레 악상을 같은 일기에 남겼다 . 당시 일기에는 그 선율을 트럼펫의 레가토와 연결했지만 , 최종판에서는 호른이 먼저 주제를 제시하고 트럼펫이 나중에 이어받는다 . 백조라는 이름은 총보에 적힌 표제가 아니라 작곡 경험과 음악을 연결해 온 후대의 통칭이다 .

세 판본과 1919년 최종형

판본	첫 공연	악장과 자료 상태
1915	1915년 12월 8일 , Helsinki City Orchestra, Sibelius	네 악장 . 자필 정서 총보는 소실되었고 공연용 필사 파트가 남아 있다 .

판본	첫 공연	악장과 자료 상태
1916	1916년 12월 8일, Turku, Orchestra of Turun Soitannollinen Seura, Sibelius	처음 두 악장을 연결했다. 자료가 부분적으로만 남아 세부 수정의 전모는 확정하기 어렵다.
1919	1919년 11월 24일, Helsinki City Orchestra, Sibelius	오늘날의 세 악장 최종판. 자필 총보는 National Library of Finland 소장이다.

1915년 초연은 시벨리우스의 50세 생일 음악회에서 이루어져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Helsinki Philharmonic의 연혁 자료가 지적하듯 당시 보도는 작품 분석보다 국가적 경축 행사에 더 많은 지면을 썼다. 작곡가는 큰 환영 속에서도 개작을 택했다. 정확히 1년 뒤 Turku에서 개정판을 지휘했고, 1918–1919년에 다시 손질한 뒤 최종판을 내놓았다.

1916년 공연일은 일부 영미권 오케스트라 해설에서 12월 14일 또는 Helsinki로 잘못 전해진다. 공연일은 시벨리우스 공식 작품 목록, 핀란드 국립도서관, Helsinki Philharmonic, *Jean Sibelius Works* 자료가 일치해서 제시하는 1916년 12월 8일 Turku를 따른다.

출판 정보와 자료

1919년 최종판의 총보와 파트는 Wilhelm Hansen이 1921년에 출판했다. Jonathan Del Mar의 서지 조사에 따르면 대형 총보의 plate number는 17538, 미니어처 스코어는 17539다. 핀란드 국립도서관에는 `Hansen 2103b`, c1921, 136쪽으로 기재된 포켓 스코어도 남아 있다.

Paavo Berglund는 1974년 초판 총보와 파트를 교정했고, 파트는 새로 필사되었다. Del Mar가 2023년에 확인한 출판사 대여 자료는 이 교정을 반영한다. 1921년 인쇄 총보와 현행 파트는 교정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자료의 대조가 리허설 준비에 포함된다.

1915년판은 Timo Virtanen이 현존하는 관현악 파트에서 복원한 *Jean Sibelius Works* I/6a로 2026년에 처음 비평판 출간되었다. 이 판의 두 번째 Flute는 Piccolo를 겸하고 Bass Clarinet도 포함한다. 반면 1919년 최종판의 JSW 비평판 I/6b는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현행 목록에서 아직 작업 중이다. 2026년 초기판 비평판과 현행 최종판 악보는 서로 다른 판본과 편집 단계에 속한다.

소요 시간

출판사 Wise Music Classical은 최종판의 소요 시간을 약 33분으로 제시하며, 실제 공연은 대체로 30–35분 범위에 놓인다. 아래 시간은 Osmo Vänskä가 Lahti Symphony Orchestra와 녹음한 1919년 최종판 (BIS-CD-863)의 공개 트랙 정보다. 세 트랙을 합하면 31분 13초다.

악장	시간
I. *Tempo molto moderato – Allegro moderato (ma poco a poco stretto)*	13:23
II. *Andante mosso, quasi allegretto*	8:45
III. *Allegro molto*	9:05

악장	시간
합계	**31:13**

같은 음반에 실린 1915년판은 네 악장 합계 34분 55초다 . 두 시간의 차이만으로 개작의 성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 1919년판에서 처음 두 악장의 접합과 피날레의 압축을 같은 지휘자 ·악단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편성

아래 표는 1919년 최종판 기준이다 .

구분	편성
Woodwinds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Brass	4 Horns, 3 Trumpets, 3 Trombones
Percussion	Timpani
Strings	Violins I, Violins II, Violas, Violoncellos, Double Basses

Percussion은 Timpani 하나뿐이며 Tuba, Harp, Keyboard는 없다 . 1915년판의 Bass Clarinet과 Piccolo doubling도 최종판 편성에는 없다 . 규모는 비교적 절제되어 있다 . 4대의 호른이 시작과 피날레의 큰 선을 맡고 , 3대씩의 트럼펫과 트롬본이 종결의 중량을 넓힌다 .

악장별 정보

I. Tempo molto moderato – Allegro moderato (ma poco a poco stretto)

1915년판에서 분리되어 있던 처음 두 악장에 해당하는 재료가 하나의 연속 과정으로 결합된다 . 시작에서는 호른의 E♭ 장 3화음과 목관의 짧은 응답이 넓은 간격을 만든다 . 같은 단편들은 음색과 배치 , 진행 방향을 바꾸며 돌아온다 . 바순 독주를 지난 뒤 박의 감각이 이동하고 , 앞의 재료는 속도를 얻은 뒤쪽에서 스케르초 성격으로 바뀐다 .

악장 끝의 `poco a poco stretto`는 이 결합을 실제 시간으로 드러낸다 . Paavo Järvi는 이 대목의 가속을 멈추기 어려운 운동으로 설명한다 . Järvi가 말하는 가속은 첫 템포에서 출발해 중간의 박 변화를 거쳐 마지막 stretto에 닿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 . 초점은 특정 메트로놈 수치가 아니라 악장 전체를 관통하는 진행 방향에 있다 .

II. Andante mosso, quasi allegretto

피치카토 현악과 목관이 간결한 주제를 내놓고 그 리듬과 음색 배치가 변주된다 . 작은 단위의 회귀가 중심이며 , 돌아올 때마다 관현악법과 음역 및 강세의 조합이 바뀐다 . 중간중간 어두워지는 화성과 금관 및 저음의

움직임은 독립적인 느린 악장 안에서도 피날레를 향한 연결을 만든다 .

Paavo Järvi는 이 주제를 `fiddle music`에 가까운 성격으로 읽고 선율의 무게보다 움직임을 앞세운다 . 그의 해석은 `mosso`와 `quasi allegretto`가 짧은 변주들의 리듬적 친연성과 3악장으로 이어지는 비례를 정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

III. Allegro molto

빠른 현악의 움직임과 짧은 목관 음형 위로 저현의 동기가 반복되며 시작한다 . 서로 다른 리듬이 하나의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서 4대의 호른이 넓은 주제를 내놓는다 . 목관 선율이 이 주제 위에 놓이면서 피날레의 두 재료는 속도와 음역이 다른 채 함께 진행한다 .

빠른 재료와 호른 주제의 귀환 뒤에는 `Misterioso`로 가라앉는 구간이 오고 , 주제가 트럼펫으로 옮겨지며 종결을 향한다 . 백조 일화는 이 넓은 주제의 발생 배경을 보여 준다 . 악장의 구조는 서로 다른 재료가 되돌아오며 비중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 .

마지막은 흔히 “여섯 화음 ”으로 불린다 . 더 정확히는 긴 쉼으로 갈라진 네 번의 화음성 타격과 마지막 두 번의 E♭ 단일음 타격 , 모두 여섯 번이다 . Paavo Järvi는 이 대목에서 타이밍과 확신이 효과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 긴 쉼도 기보된 종결의 일부다 . 총보의 박과 공연장 잔향이 타격 사이의 실제 시간을 만들고 , 지휘 동작은 오케스트라가 다음 타격을 함께 예측하도록 쉼의 박을 유지한다 .

판본과 실연에서 확인할 쟁점

Osmo Vänskä는 1915년판을 지휘한 경험이 최종판 이해를 바꾸었다고 말하며 , 이 작품에서는 tempi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한다 . 특히 피날레의 `Un pochettino largamente`를 관행적으로 음악이 거의 멈출 만큼 늘이는 경우를 지적하고 , 지시어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넓게 ”라는 점을 환기한다 . Vänskä에게 감속의 출발점은 관행이 아니라 기보와 구조다 .

Sakari Oramo는 최종판의 성취를 성격이 다른 첫 부분과 스케르초의 공통분모를 찾아 하나의 악장으로 이은 데서 찾는다 . 이 관점에서 1악장의 연결부는 앞서 들은 재료가 다른 박과 성격을 얻는 변환의 중심이다 . 그의 분석은 연결부 전후와 함께 시작부터 가속 종결까지 긴 구간을 이어 보는 리허설 설계로 연결된다 .

Paavo Berglund는 인쇄 오류뿐 아니라 관현악 균형까지 검토해 1974년 출판 자료의 교정에 관여했다 . Simon Rattle은 자신의 초기 시벨리우스 전집을 준비할 때 Berglund와 악보를 함께 보며 그가 표시한 오류와 균형 조언을 사용했다고 회고한다 . Berglund의 자료는 목관의 짝 , 저현의 선 , 금관 아래의 내부 성부가 실제로 들리는 균형을 지향한다 . 그의 교정 중심 접근과 Vänskä의 기보 우선 접근은 서로 다른 해석 원칙을 보여 준다 .

녹음으로 비교하는 판본과 해석

녹음	자료 가치	독립 평가에서 확인할 점
Robert Kajanus / London Symphony Orchestra, 1932	6월 22–23일 Abbey Road에서 녹음 , 29:39. 작곡가의 승인을 받은 초기 연주 전통의 문헌적 자료	복각 음질의 범위 안에서 초기 템포와 프레이징을 비교하는 자료다 .

녹음	자료 가치	독립 평가에서 확인할 점
Herbert von Karajan / Berlin Philharmonic, 1965, DG	31:34. 큰 호흡과 밀도 높은 관현악 음향을 대표하는 사례	MusicWeb의 John Quinn은 1악장의 점진적 가속과 호른의 기여, 피날레의 에너지와 장대함을 강점으로 들었다.
Paavo Berglund /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1973, EMI	Berglund의 첫 교향곡 전집에 속하며 그의 악보 교정 작업과 함께 볼 수 있다.	Flying Inkpot은 1악장의 생명력과 투명성, `Misterioso`의 분위기를 높이 평가했다.
Osmo Vänskä / Lahti Symphony Orchestra, 1995·1997, BIS-CD-863	1915년판 최초 상업 녹음과 1919년 최종판을 같은 지휘자·악단으로 비교	개작 전후의 첫 악장 결합, 피날레 길이와 종결, 과도한 감속을 피한 템포 관계를 직접 비교하기 좋다.

Kajanus의 1932년 녹음은 작곡가와 가까운 연주 전통, Karajan의 1965년 녹음은 중량감 있는 장기 호흡, Berglund와 Vänskä의 녹음은 악보 교정과 판본 비교를 각각 들려준다. 1악장의 템포 연결, 2악장의 움직임, 피날레의 감속과 마지막 쉼을 같은 항목으로 놓고 비교하면 해석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요 자료

- Jean Sibelius 웹사이트, “Fifth symphony op. 82 (1915–1919)” — 작곡 일기, 세 판본, 초연, 작품 분석과 초기 수용
- Jean Sibelius 웹사이트, 작품번호 81–90 — 판본별 악장과 공식 초연 정보
- National Library of Finland, 1915년판 비평판 출간 공지 — 소실 자필 총보, 현존 파트, JSW I/6a의 복원 근거
- Breitkopf & Härtel, *Jean Sibelius Works* I/6a — 1915년판의 악장·편성·연주 이력과 출판 정보
- Jonathan Del Mar, “Sibelius: Symphony No. 5 in E Flat, Op. 82” — 1921년 초판, 자필 자료, 1974년 Berglund 교정
- Wise Music Classical, 1919년 최종판 — 현행 출판사, 편성, 약 33분의 소요 시간
- Paavo Järvi 인터뷰, Classic FM — 1악장 가속, 2악장 성격, 마지막 여섯 타격에 관한 직접 발언
- Osmo Vänskä 인터뷰, ResMusica — 템포, `Un pochettino largamente`, 1915년판 비교에 관한 직접 발언
- Finnish Music Quarterly, “Sibelius — the View from the Podium” — Berglund의 교정·균형과 Rattle의 증언
- Naxos/BIS, BIS-CD-863 — Vänskä/Lahti의 1915년판·1919년판 트랙과 시간
- Naxos Historical 8.111395 — Kajanus/LSO 1932년 녹음의 세션·시간·역사적 맥락
- MusicWeb International, Karajan DG Sibelius 녹음 리뷰 — 1965년 녹음의 독립 비평과 제작 정보
- Boston Symphony Orchestra, Marc Mandel 작품 해설 — 첫 악장의 결합, 변주적 2악장, 피날레 종결의 구조 분석
- Philadelphia Orchestra, 2022–23 프로그램 노트 — 악장별 진행, 편성, 공연 시간의 교차 자료
- MusicWeb International, Vänskä/Minnesota 리뷰 — 연결부와 마지막 타격 사이의 쉼에 관한 독립 청취 비교